

리아호나



그분은 살아계시다! 8쪽

배움: 신성한 추구, 26쪽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한 간단한 공식, 36쪽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구주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누가복음 24:38~39, 43)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8쪽 참조



성인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참된 교리를 가르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25 방문 교육 메시지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함

8 특집 기사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구대륙과 신대륙에서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은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한다.

14 여러분에게 속죄란 무엇입니까?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속죄는 우리의 고통과 죄, 유혹, 실망에 대한 유일한 종합
치료제이다.

20 선한 목자의 음성

쉐리 카트라이트 지퍼리안
선한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에 필수적이다.

26 배움과 후기 성도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크리스틴 엠 옥스 자매
옥스 장로 부부가 그들의 대조적인 경험을 통해 후기 성도에게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친다.

38 희망의 불을 밝힘 마이클 알 모리스

브라질 후기 성도들이 영구 교육 기금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말한다.

특집란

44 후기 성도의 소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는 봉사; 경전과 읽고 쓰는 능력;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결심; 생명이 꺼져가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의 주제들; 성공적인 가정의 밤

표지

앞: 엠마오의 그리스도, 윌터 레인
뒤: 사진 촬영: 존 루크

청소년

특집 기사

32 주어진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폴 반덴버그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져오는가?

36 밤새워 공부하지 않았습디다

신시아 베로니카 살라사르 마르케즈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학교에서 성공을 거두고 생활의
균형을 찾았다.

특집란

21 포스터: 내게 배우라

22 질의 응답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굳건할 수 있을까요?

24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야고보서 1:5~6

선지자 조셉을 숲속으로 인도했던 경전 구절은 여러분이 해답을
찾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3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와 부활하신 주님, 해리 앤더슨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한복음 20:15~16)

2009년 4월호, 제46권, 제4호
리아호나 04284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은: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올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도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케네스 존슨, 요시히코 기무찌,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레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드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로리스,
샬리 제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페커, 제드 이 페라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홀나, 돈 엘 셋,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윌렛
선임 비서: 로벨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영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킷트 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이로우, 클레트 네베커 오온,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머,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낄스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 516호, 제46권, 제4호
통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발행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은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사무)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잡지)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pril 2009 Vol. 33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
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 안전하게 돌아감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특집 기사

친8 교회 조직에 관한 질문과 답변

친12 배움을 기뻐함 레나 하퍼

특집란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첼러 에스플린

친6 친구가 친구에게: 선지자의 약속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

친10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적들과의 화해

친15 음악: 나 침례 받고 싶어

친16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삽화: 짐 매드슨.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세부어 정의만 반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애독자 편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아호나

제 삶에 리아호나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리아호나를
가정의 밤 공과와 구도자들이 교회에 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리아호나는 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잡지의 기사들을 통해 더
잘해야겠다는 한없는 소망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의 가르침과
관련된 목표들을 세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일 매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합니다.

그라지엘루 루이자 라모스 데 프레이타스, 브라질

영적인 입을 거리

리아호나는 커다란 축복이며, 그 책을
읽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때때로
저는 다른 사람들도 리아호나를 읽으면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물합니다. 특히 2008년 4월호
친구들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주신 "세 개의 다리"라는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느끼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리아호나는 훌륭하고도
영적인 입을 거리입니다.

엘리노어 그리말디, 도미니카 공화국



참된 교리를 가르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빛과 어둠, 선과 악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그 희생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파괴자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처한 사람들 주위를 맴도는 세력에 대항하여 모든 선한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선지자가 또 다른 힘에 대해 권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엘마는 잔인한 적들에 의해 멸망될 처지에 놓인 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었기에,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쌓거나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병기를 제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마는 우선 한 가지 영적인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엘마서 31:5)

지성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리입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인 것, 즉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성의 눈을 열어 줍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갖도록 마음을 열어 줄 수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선교사로 그분께 봉사하기를 원하셨던 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시면서, 교리와 성약 18편에 언급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러한 권능의 근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가족 가운데 선교 사업 준비를 망설이고 있는 어떤 청소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청소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가르치신 방법을 볼 수 있으며, 여러분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청소년에게 그분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버 카우드리여, 내가 너와 또한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계명으로써 말하노니, 이는 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할 것을 명함이니라. 또 나는 나의 사도 바울에게 하였던 것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부르심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까닭이니라.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9~10)

그분은 먼저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커다란 위협 앞에서, 엘마는 그의 백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선 한 가지 영적인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 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

신뢰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아버지와 자신이 모든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교리의 기초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

“또 그는 회개의 조건 위에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교리와 성약 18:11~13)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자신의 사명에 관한 교리를 알려 주시면서 그분은 이러한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8:14)

마지막으로, 그분은 그들의 눈을 열어 휘장 저편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묘사되어 있는 내세로 그들과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훌륭한 연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연합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이 몇 구절에서, 주님은 교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을 향해 열리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교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진리의 영에 의해 밝혀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지성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잘 설명해 줍니다. 교리는 성신이 그것의 참됨을 확인해 줄 때 권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그들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의 조용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겸손함, 즉 우리를 향한 구주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고자 하는 소망을 갖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교리의 또 다른 권능으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스스로 그 나아갈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리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아주 작은 씨앗 하나라도 영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신과 우리가 가르칠 사람에게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신은 진리의 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해석을 피할 때 성신의 확언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전에 가르침 받은 교리를 무시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롭거나 자극적인 것을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리만을 가르치도록 주의할 때 우리는 성신을 동반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의 근처에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가르침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바로 그 단순함에서 생겨나며, 그로 인해 잃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주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기는 아직 현세적인 유혹에 물들지 않은 어린 시절,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고민하느라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기 훨씬 전인 어린 시절이 가장 좋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를 모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기회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사탄이 기울이는 노력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자녀의 삶에 교리의 권능이 소개되는 한 시간 한 시간에 비해,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메시지 또는 형상들은 몇 백 시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할 수 없지 않은가, 또는 그냥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이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 혹은 자녀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시간도 별로 없고 기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교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자녀들이 자신에게 분명히 닥쳐올 신앙에 대한 공격을 막아 낼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최선을 다해 교리를 가르치지만, 일부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관한 경전의 기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엘마 이세와 이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부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노스서 1:1~4; 엘마서 36:16~19 참조)
그것이 이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신성한 교리는 기억될 것입니다.

가르침의 지속적인 효과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이 교리를 가르칠 만큼 잘 아는지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리를 가르치려고 시도했다면, 왜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는지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새로운 개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한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결과가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저는 제 노력의 결실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메리 보멜리는 제 증조모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뵈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1830년에 태어나셨고 스물네 살이셨을 때 선교사들이 스위스에 있던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이십 대였던 증조 할머니, 젊은 메리는 집에서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어 팔아 작은 농장에 있는 가족을

가 르치는 시기는 어린이들이

아직 현세적인 유혹에 물들지 않은 시절,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고민하느라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기 훨씬 전인 어린 시절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를린에서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부양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교리를 전해 들은 그녀의
 가족들은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메리의 남동생들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미국으로 가서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모두가 미국으로 가기에는 돈이 모자랐습니다.
 메리는 옷감을 짜면 충분히 자신을 부양하고 또
 여행 경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뒤에
 남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를린으로
 가서 어느 부인의 집에 고용되어 그 가족의 옷감을
 짜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하인 방에서 지냈고 그
 집 거실에 베틀을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베를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던 집의 안주인과 그녀의 친구들은
 베틀 주위에 모여 이 스위스 아가씨의 가르침을

들곤 했습니다. 메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 천사들의 방문, 그리고 물몬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엘마의 기록에 이르러서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옷감을 짜는 데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어려서 숨지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베틀 주위에 모였던
 여인들도 자녀들을 잃었는데, 그 중에는 자녀를
 여럿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리가 그 어린
 아이들은 해의 왕국의 상속자이며 그 여인들이
 다시 자녀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구주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자,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리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흘러내린 눈물이 메리가 짠 옷감을
 적셨습니다.

메리의 가르침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에 찬 교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기사의 첫 문단을 읽는다. 마음과 지성을 여는 것이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아이어링 회장의 증조모인 메리 보멜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토론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2. 여러분에게 의미있는 한 가지 교리를 간략하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물이나 시각 보조 자료를 가져간다. (예를 들면,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겨자 씨를, 또는 생명의 떡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떡 한 조각을 가져간다.)

그 교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에게 의미있는 교리들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3.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부분에 나오는 가르침의 원리들을 가족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앞으로 가질 가정의 밤 시간에 그 원리들을 적용하도록 권유한다.



그들은 메리를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메리는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만나게 될 판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그가 훌륭한 아버지이자 훌륭한 남편인지도 물어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웃으면서 담당 판사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메리는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몰몬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의 세계, 그리고 이 판사가 최후의 심판을 맞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삶에 대해 생각하고 숙고해 보아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회개할 것이 많으며 그것이 그의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에게도 역시 큰 슬픔을 가져올 것이라고 썼습니다. 메리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이 되자 경관에게 그 편지를 판사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그 경관을 사무실로 불러왔습니다. 메리가 쓴 편지는 그녀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러므로 법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관이 메리가 있는 감방으로 다시 찾아와서는 판사가 그녀의 모든 혐의를 기각했으니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교리에 대한 메리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열었고 그로 인해 메리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감옥 안에서 판사에게 회개의 교리를 전함으로써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¹

후손을 형성함

메리 보멜리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베틀 주위에 모여들었던 여인들과 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리 할머니의 손자인 저의 아버지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 밤에 걸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영의 세계에서 곧 있을 기쁜 재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동안, 저는 마치 천국이라는 곳에서의 환한 햇빛과 미소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회개할 것이 있으신지 여쭙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드러운 소리로 웃으시더니, “없단다, 할. 그때 그때 회개를 해 왔었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리 할머니가 그 여인들에게 가르친 천국에 관한 교리는 손자에게도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가르쳤던 그 회개의 교리는 제 아버지의 삶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메리 할머니의 말씀 기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집안의 후손들에게까지 참된 교리를 전할 것입니다. 비록 새로운 개종자였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으셨기에, 메리 할머니의 후손들의 마음은 열릴 것이고 그들은 선약간의 싸움 가운데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도 서로에게 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영적인 것에 지성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올 때, 그것은 또한 입을 열게 하는 힘도 가집니다. 베를린의 그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대한 구주의 사랑의 사명과 그분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

주

1. Theresa Snow Hill, *Life and Times of Henry Eyring and Mary Bommel* (1997), 15~2쪽 참조.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위: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델 파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는] 제삼일에 살아나리라”(마태복음 20:19)

오른쪽: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월터 라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그가 ...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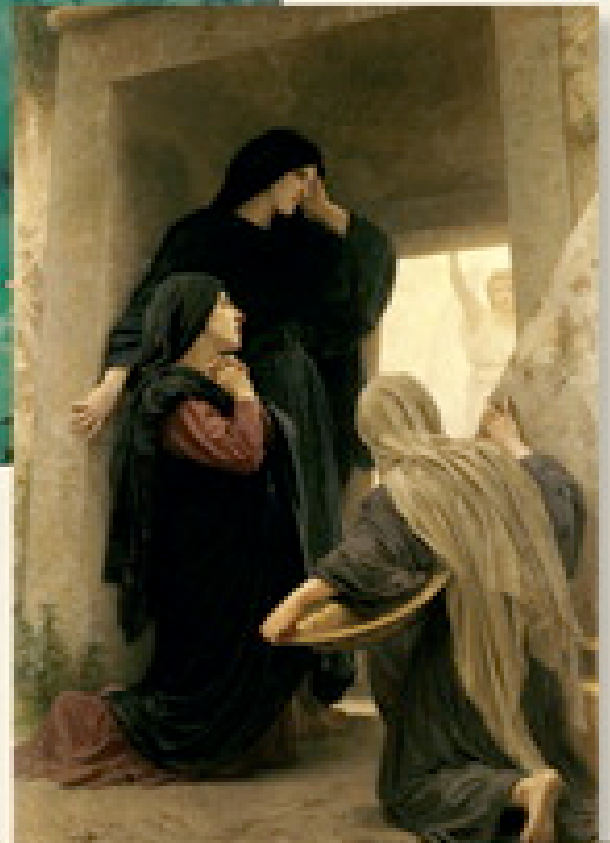
구 주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는 성지 (8~1 쪽 참조)와 미대륙(12~1 쪽 참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 현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처럼 고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7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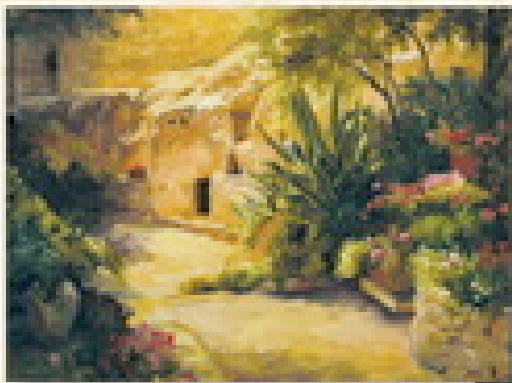
위: 새벽에, 엘스페스 영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태복음 28:1)



아래: 무덤에 있는 세 마리아,
 윌리엄-아돌프 보게로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마가복음 16:5)



위: 부활절 아침, 윌리엄 에프 휘태커 이세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한복음 20:16)



위: 동산 무덤, 린다 켈리 크리스텐슨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마태복음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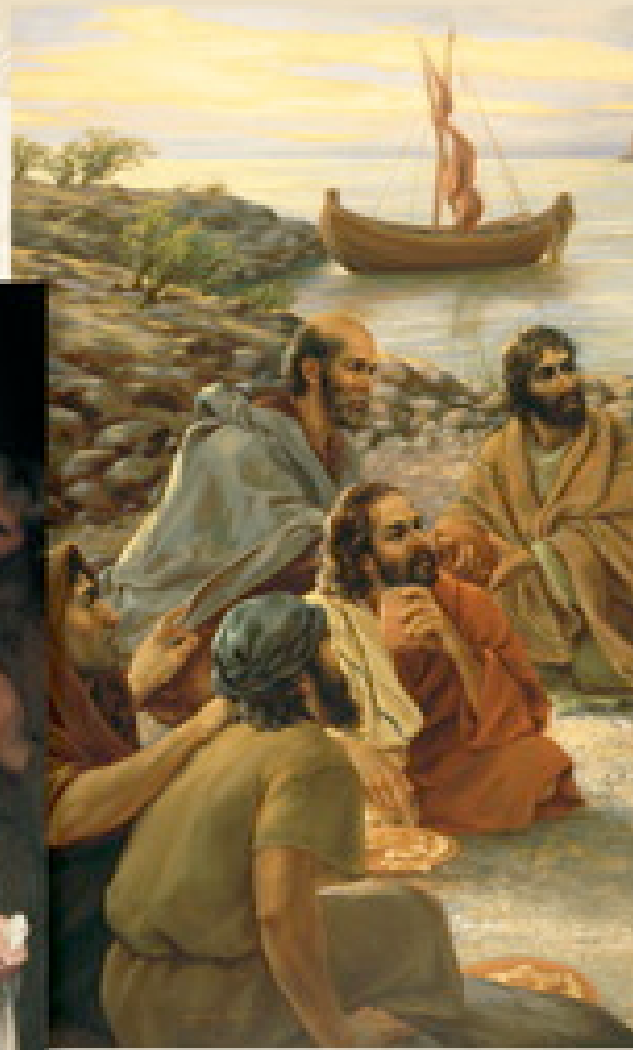
오른쪽: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 댄 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요한복음 20:3~4)





위: 의심하는 도마, 칼 하인리히 블로흐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복음 20:27)

**오른쪽: 갈릴리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
 도, 게리 스미스**
 "예수께서 나와와 [열 한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태복음 28:18~19)



위: 내 양을 먹이라, 카밀 코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요한복음 21:16)





© 1989 IRI

아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레고 올슨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누가복음 24:29)



© 1989, 복음 1989년

오른쪽: 예수님의 승천, 해리 앤더슨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누가복음 24:51)



아래: 서반구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아들드 프리버그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다시 드니, 보라, 그들이 본즉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제3니파이 11:8)

© 1951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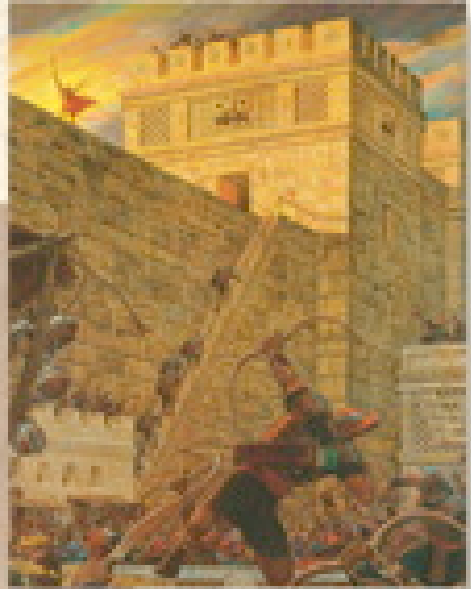
오른쪽: 풍요 땅에 계신 그리스도, 사이먼 듀이
 “우리가 나아갔느니라 ...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으니, ... 그가 ... [그리스도]이심을 ... 증거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5)

© 2003 F



위: 레이먼인 사무엘이 예언하다, 아들드 프리버그
 믿지 않은 니파이인들이 “성벽 위에 있는 그에게 돌을 던졌고, 또한 많은 자들이 성벽 위에 서 있는 그에게 화살을 쏘았더라.”(힐라맨서 16:2)

© 1951 F





왼쪽: 기록을 가져오라, 로버트 티 바렛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의 말씀대로 [레이먼인] 사무엘은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 이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은 어쩍이나 하시더라”(제3니파이 23:10~11)

아래: 그리스도와 물문경의 어린이들, 델 파슨
 “그리스도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증거하니라. 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제3니파이 17:21)

© 1983



© 1985

©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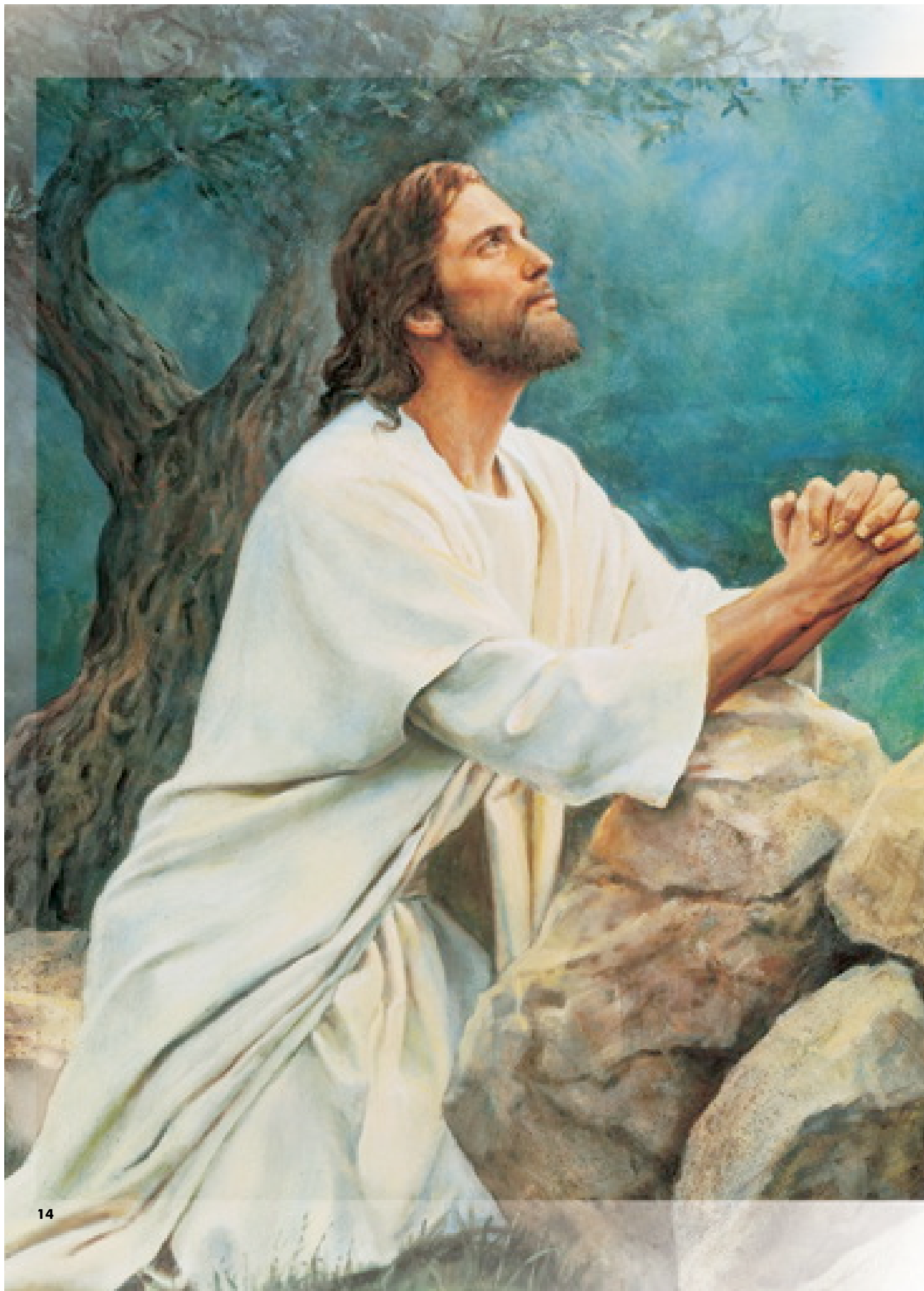


왼쪽: 니파이인들과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덴 헤닝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제3니파이 17:17)

아래: 미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 스캇
 “니파이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7)

© 1984





여러분에게 속죄란 무엇입니까?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¹

이 기본적인 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속죄(Atonement)라는 단어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at one]만드는 것을 말하며,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떨어진 것의 원인은 죄이며, 그러므로 속죄의 목적은 죄의 결과를 바로잡거나 극복하는 것입니다.”² 저는 공공연하게 지은 죄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 위험은 우리 주위에 상존합니다. 다행히도, 속죄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 속죄를 “무한한”(니파이후서 9:7) 것으로 설명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한계나 외적으로 부과된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속죄는 우리에게 매우 놀랍고도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이 비할 데

없는 선물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장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는데, 이는 그분이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이 중요한 일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분의 죄 없는 완전한 지상 생활, 피 흘림, 동산과 십자가에서의 고통, 자발적인 죽음, 그리고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이 모든 세대와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속죄를 가능케 했습니다.

속죄로 인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범법과 죄와 관련하여, 속죄의 조건적인 측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그리고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불멸과 영생

아마도 모임이나 글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모세서에 나오는 명확하고 간략하면서도 훌륭한 이 구절일 것입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 모두는 불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속죄로 인해, 주 예수



속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용됩니다.



우 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어 신성한 상징물을 취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충분한 신앙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받드는 자들, 회개하고 그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 그와 그분의 아버지와의 성약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신성한 장소에서 신성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구원의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이 있다고 공언하면서 부활에 대해 매우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세세한 사항들에 관해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약속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확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조건적이고 우리의 노력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 사이에서 생겨나는 의문들로 인해 때때로, 아니 정기적으로-심지어는

지속적으로-고뇌하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는 순전히 우리 자신만의 강한 결심과 의지력과 자기 수양만을 통해 성도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잘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³

우리의 구원이 단지 우리 자신만의 노력의 문제일 뿐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며 항상 모든 면에서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니파이는 은혜와 행위와의 관계의 딜레마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라.”(니파이후서 25:23)

경전 안내서는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도움 또는 힘을 가져오는 신성한 절차 또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분의 속죄에 의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⁴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것이며, 우리가 선행을 이룩하고 필요한 발전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속죄입니다. 우리가 순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에만 의존해야 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속죄를 통한 행복

제가 니파이에 대해 감탄하는 여러 가지 면 중 하나는 그의 태도입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 특히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편안함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니파이와 그의 가족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갈증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니파이는 레이맨과 레무엘로 인해 악화된 심각한 가족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 자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레이먼과 레무엘 편에 선 사람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궁핍과 어려움에 직면하고도 니파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니파이후서 5:27)

그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실망에 관계없이,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와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며, 따라서 좌절로 인해 또는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통찰로 인해 실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속죄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 속죄가 그들을 위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도 자문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 그러면 내가 그토록 큰 일을 보았을진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낮추어 내려오사 그토록 많은 자비로 사람들을 찾아주셨을진대, 어찌하여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울며, 내 영혼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며, 내 육신이 소진되며, 내 힘이 풀려야 하느냐?

“또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죄에 굴복해야 하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내가 유혹에 저서 저 악한 자가 내 마음에 자리잡고 내 평화를 깨뜨리며 내 영혼을 괴롭히게 하여야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원수로 인하여 노하느냐?”(니파이후서 4:26~27)

이렇게 한탄한 뒤, 그는 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하고자 자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지 말지어다.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내 영혼의 원수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말지어다. …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니파이후서 4:28, 34)

이것이 니파이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가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 해 전에 그가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천사에게 했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니파이전서 11:17)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알지도 못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삶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온전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으며 또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악마의 자리를 내주는 어리석음과 위험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마음과 생활에서 악마와 악을 배제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사이야서 3:19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원리에 감사해야 하며, 그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며, 때때로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회개의 과정을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태만 죄와 위반 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고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부정이나 실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실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십일조를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은 지속적인 개선과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영성, 사랑, 타인에 대한 민감성, 가족에 대한 배려심, 이웃에 대한 관심, 경전의 이해, 성전 참여, 개인 기도의 질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어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함께 신성한 상징물을 취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양식을 따를 때, 우리의 회개와 행위의 질은 더 높아지며, 속죄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능력은 증대됩니다.

회개와 순종

1830년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 몇 주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속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해 주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주를 사랑하고
공경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가 바로 공의만이 요구될
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정도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세상의 구속주”라고 표현하셨고(교리와 성약 19:1),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네게 명하노니, 회개하라. 그리고 … 내가 받은 계명들을 지키기를 명하노라.”(교리와 성약 19:13)

회개와 순종의 이 단순한 양식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이유를 잊어 버릴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같은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9)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위대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분이 겪었던 고통의 정도와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비록 조셉 스미스가 말년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 큰 감사와 이해를 얻었을지라도, 그 당시 그 선지자가 구주의 고통에 대해 온전히 느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리버티 감옥에 감금되어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조셉에게 권고하고 위로하실 때 친히 주신 교정적인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때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교리와 성약 122:8)

조셉에게 주어진 이 질문은 각자 개인적이고 독특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올바른 답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깊이와 충절로 그분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십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주를 사랑하고 공경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가 바로 공의만이 요구될 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정도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채찍질, 궁핍, 학대, 못박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과 고통에 이어, 그분의 권능 없이는, 또한 그 과정을 참고 자신에게 할당된 모든 것을 견뎌 내겠다는 그분의 결단 없이는 그 누구도 참아 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경험이 뒤따랐습니다.

속죄의 포괄성

우리가 속죄의 포괄성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구속주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한 속죄의 희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우른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속죄가 실현되기 거의 1세기 전에 충실한 기드온 백성에게 한 엘마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라.

“이제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심이니,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니라.”(앨마서 7:11~13)

우리의 고통, 고난, 유희, 질병, 죄, 실망, 그리고 범법에 대한 완전하고도 종합적인 치료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속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비할 데 없는 부활을 여기에 더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라는 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의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⁵

여러분과 제게 속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와 화목하게”(야곱서 4:11)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분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완전한 용납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부인하며, 그의 속죄와 그의 구속의 능력을 무시하는”(모로나이서 8:20) 실수나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권고를 들음으로써 구주의 속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의 권고는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직전 몇 해 동안에 적절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꼭 들어맞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오 기억하라, 나의 아들들아 ... 참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일 뿐임을 기억하라. 참으로 그가 세상을 구속하려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힐라맨서 5:9)

그분의 속죄는 참으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나 속죄는 그 자체의 포괄성과 완전함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창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각자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사항과 도전과 가능성에 온전히 부합되는 속죄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속죄를 이루신 구주께 감사드립니다. 속죄는 참되고 유효하며 우리가 있어야 하고 있기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

2008년 5월 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재, 2007년), 49쪽.
2. Bible Dictionary, “Atonement” 617쪽; 또한 경전 안내서, “속죄하다, 속죄”, 147~148쪽 참조.
3. David A. Bednar, “In the Strength of the Lord,” Brigham Young University 2001~2002 Speeches(2002년), 123쪽.
4. Bible Dictionary, “Grace”, 69쪽 참조; 또한 경전 안내서, “은혜”, 231~232쪽 참조.
5.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찬송가, 111장.

선한 목자의 음성

쉐리 카트라이트 지퍼리안

70 인생 중 대부분을 몬타나 주에서 목장주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저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비유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경험들은 제가 그 비유를 의미 있게 여기는 데 특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각각의 목자들이 자신의 음성을 통해 함께 무리 지어 있는 양 떼 중에서 자신의 양 떼를 야간 우리로 인도했습니다.(3~4절 참조)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양들을 이동시킬 때, 단순히 그들을 부르지만 해도 그들은 따라옵니다.

여러 해 전, 저처럼 양을 기르던 96세의 원기 왕성한 이웃 앨리스가 양들의 분만기가 찾아왔을 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에 양들의 분만을 대신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임무를 띠고” 양 우리로 들어간 첫 날 밤, 100마리에 가까운 앨리스의 암양들은 평화로이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났을 때, 양들은 곧바로 그들 중에 있는 낯선 사람을 감지했습니다. 겁에 질린 양들은 즉시 멀리 떨어진 구석에 함께 모여 안전한 곳을 물색했습니다.(5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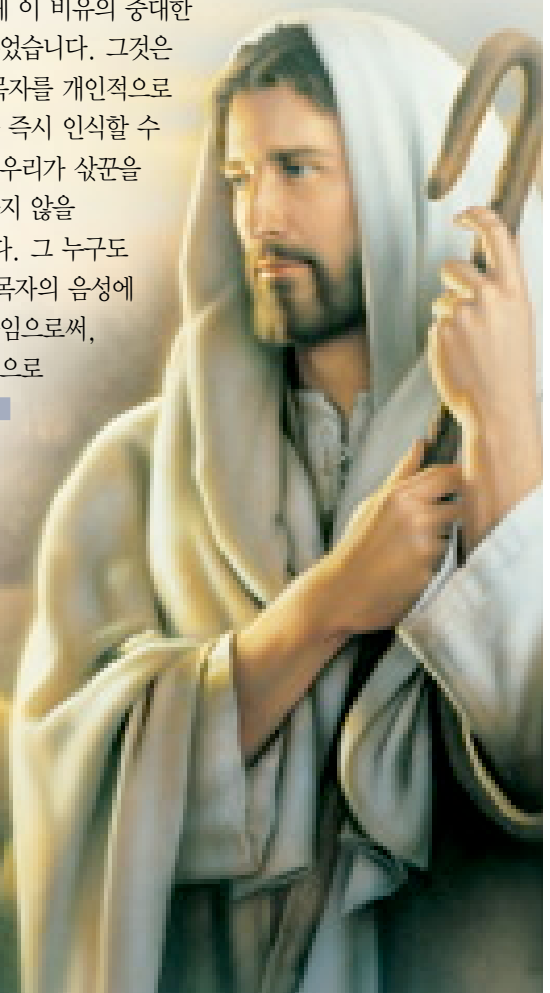
이 일은 며칠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용히 들어가느냐에 관계없이, 양들은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양들과 암양들을 돌보면서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이 되자, 제가 양들 사이에서 일을 해도 양들이 더 이상 경계하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앨리스에게 열두 마리 정도 되는 떠돌이 양들에게 젖병을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떠돌이 양은 어미를 잃었거나 제 어미가 충분한 젖이 들지 않는 양을 말합니다.) 앨리스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저는 그녀의 양들을 “이리와, 바바! 이리와, 바바!”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양들이 앨리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배가 고파서 저에게 우르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의 양도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앨리스가 부엌 문에서 나와 양들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양들은 젖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그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앨리스와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앨리스가 제 우리로 와서 제가 양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들의 애칭을 흉내 내며 “여기야, 램비, 램비! 여기야, 램비, 램비!”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똑같은 말로 그들을 부르자, 제 양들은 재빨리 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양들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말은 같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에 양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그들의 참목자의 음성만을 충성스럽게 들었습니다.(4절 참조)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치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치는 목자는 양들의 안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양치기는 단지 “샅꾼”이며 “돌보지 [않습니다].”(13절 참조) 이 비유는 또한 샅꾼이 그의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반면(12절 참조),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11절 참조)을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이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즉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15, 17~18절 참조)

이 경험은 저에게 이 비유의 중대한 교훈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의 음성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가 샅꾼을 따라가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우리의 선한 목자의 음성에 충실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은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위대합니다.(마태복음 11:29 참조)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할 수 있을까요?”

이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부모님에게서 인도와 지도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굳건하게 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좋은 모범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불러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범과 도움을 위해 다른 친척들이나 교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없을 경우,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나 감독님 혹은 지부 회장님께 신권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으로 형제자매들과 부모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정의 밤, 가족 기도, 혹은 가족 경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참여하고 싶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친절하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 기도를 하자고 부모님께 권유하세요. 그분들을 교회 활동에 초대하고 가정의 밤을 계획하세요. 부모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좋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게 되고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며 주님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굳건하게 남도록 도우실 거예요. 신앙과 헌신으로 그렇게 행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소니아 비, 20세, 멕시코 유카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의 아버지는 회원이 아니고 저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활동적이지 않아요. 가족들이 저의 믿음에 무관심하다면 슬프겠죠. 하지만 세미나리와 교회 모임, 그리고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은 자라났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만다 비, 16세, 미국 네바다 주

계속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

저는 부모님이 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굳건한 한 놀라운 소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벌써 청녀 메달을 받아 다른 소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속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다른 청녀들의 도움,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하기 등이라고 말합니다.

첼시 시, 17세, 미국 오클라호마 주

안전한 안식처



저는 저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기도와 경전 공부에 의지합니다. 또한 저는 스카우트 활동 및 청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의 부름을 완수함으로써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과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 존중을 포함으로써 언제나 좋은 모범이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부분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맡으신 부분을 하실 것입니다.

위그햄 장로, 21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선교부

그들의 모범으로부터의 용기

저희 어머니는 저활동이시고, 다른 친척들은 회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의 지도자들과 친구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저를 도와줍니다. 그분들이 제 삶의 방식이나 선교 사업을 가졌다는 저의 목표에 도움을 준 이래로, 그분들은 제 삶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범을 통해 제게 많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회원으로서 강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우정에 감사하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나 그들로부터 배울 무언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바나 에스, 20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러분의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교통편을 부탁하고 혹시 여러분의 감독님이 부모님과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매일 물몬경을 읽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엘, 16세, 미국 미주리 주

두 가지 지원 체계

저는 저희 선교부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겪는 아이들은 용감합니다. 그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기도와 매일 경전 읽기와 교회 참석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스 장로, 21세, 타히티 파페에테 선교부

다음 호 질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숙하지 않은 옷을 입습니다. 제가 어떻게 순결하고 깨끗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2009년 5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5/09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드(혹은 지부)

스테이크(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쇄를 허가합니다.

서명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다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 모든 가족이 같지는 않지만, 각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소책자, 2001년, 10쪽)

“이상적인 가족에서부터 가장 문제가 많은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가족에게는 영적인 힘의 유일한 근원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의로운 생활 양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재보좌,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리아호나 및 Ensign 2007년 11월호, 11쪽.

야고보서 1:5~6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열쇠에 대해 가르쳤다.

하나님께 구하라

조셉 스미스는 이 구절을 읽고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첫번째 시현을 경험했다. (조셉 스미스-역사 1:11~17 참조)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의 경험 중에 지식을 구하던 사람이 기도하여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예를 떠올릴 수 있는가? 그 예를 일지에 적어 본다.

후히

후히-아낌없이, 관대하게, 풍성하게.

꾸짚음

꾸짚음-비난, 잔소리, 질책.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분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화내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재*, 2007년, 132쪽.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구절을 읽고 주님의 이 약속을 시험하여 주님께 여쭙어 보든가 아니면 암흑 속에

영원히 머무르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경전을 읽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가 진지하게 찾고 있는 진리를 알려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모범으로써*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Tambuli* 1994년 6월호, 5쪽; *리아호나*, 1994년 6월호, 2쪽.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그분의 응답은 그분의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 상황 속에, 다른 이들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혹은 성신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서-온다. 다음은 여러분이 영을 통해 인도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다. (“계시”, *신앙에 충실함* [2004년], 26~29쪽에서)

- 인도를 받기 위해 간구한다.
- 매일 경전을 공부한다.
- 경건한 태도를 지닌다.
-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 겸손해진다.
-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인도를 구할 때, 그 문제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다.
- 계명을 지킨다.
- 인내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 성장을 합당하게 취한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함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와 인용문을

가르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왜 경전을 상고하는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표준이자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을 평가할
표준으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근심과 고난이 있을 때,
경전과 선지자들에게 의지함으로써
그것들에 대응하십시오.”(“Fear Not,
Little Flock”, 1988~1989년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 98권], 112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1899~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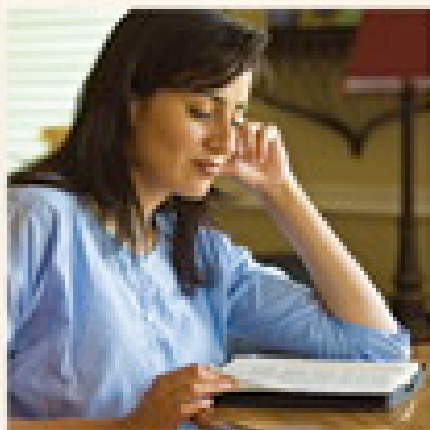
“의로움 안에서의 성공, 속임수를 피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힘, 일상 생활에서의
인도, 영혼의 치유—이것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
어떤 축복은 오직 경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굳게 잡을 때에만
옵니다. ...

경전을 공부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에 영의
권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매일 경전에
열중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여러분의 자녀가 경전을 사랑하고

아끼도록 가르치십시오.”(“The Power of
the Word”, *Ensign*, 1986년 5월호,
82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

“여러분이 경전의 진리들과 더
친숙해질수록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들어올리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는
학자가 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여성과 어머니보다 더 복음의
진리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의로운 여성의 역할”,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49쪽)

나는 어떻게 경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니파이후서 4:15: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경전
공부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니파이후서 19:23 참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알고자 하는 주제를
경전 안내서에서 선택하여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의 한
복음서를 선택하여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찾습니다. ...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하건, 중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전에서
진리의 풍성한 보화를 찾아내는 일에
결코 지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장
명백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니파이후서 32:7) 경전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39
참조) 경전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니파이후서
32:3 참조) 경전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티모데후서
3:15)

저는 경전 읽기와 이에 따른 기도를
통해 지식을 얻었고, 그 지식은 평화를
가져다주고 제 힘을 영속적인 우선
순위에 집중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경전을 매일 읽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제가 그분들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리아호나 및 Ensign*,
2004년 5월호, 108~109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성스러운
경전은 우리의 책장을 아름답게 합니다.
반드시 경전이 우리 마음에 양식을
제공하고 우리 삶에 인도를 제공하도록
하십시오.”(“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94쪽) ■

배움과 후기 성도



지식의 습득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자 그분의 종들로부터 높이 존중 받는 평생에 걸친 신성한 활동입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크리스틴 엠 옥스 자매

제 일회장단의 일원이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1871~1966)은 브리검 영 대학교의 신입 총장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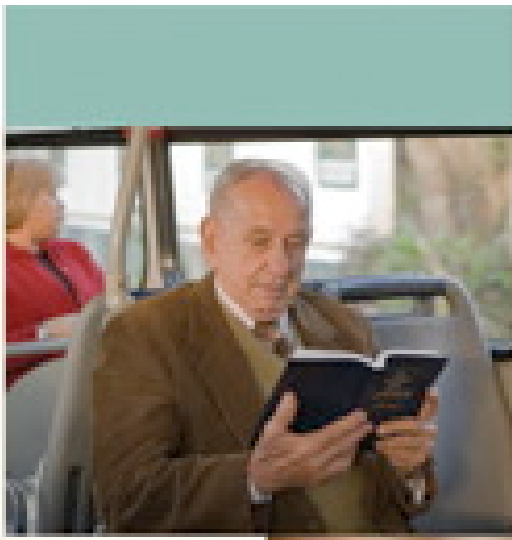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갔던 것과 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거룩한 땅에 서있는 자는 신성한 것을 얻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영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의 어떤 영역에서든 이러한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¹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교육을 믿으며,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믿음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써 배움을 추구해야 하며, 우리에게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탐구

브리검 영 회장님(1801~1876)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부지런히 지식을 구하도록 촉구합니다.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열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²

진리를 향한 우리의 탐구는 우리 삶의 활동들만큼 다양하고,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깊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기 성도는 오늘날의 중요한 종교, 자연, 사회 및 정치적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의 율법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커질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커지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할 수 있는 부도덕하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은 배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하고 강화하며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영과 함께 배우는 이 방법은 교실이나 학교 시험 준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장소-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 적용됩니다.

오늘날의 유행과 논쟁에 집착하여 휘둘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의 인도를 받고 적용하려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현대 기술이 낳는 엄청난 양의 부정확하고 사소한 정보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관찰자가 부른 “팬케이크 사람들”-단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접속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망을 통해 넓고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³

우리는 또한 왜곡된 가치와 문제되는 행동을 일삼는 인기 많은 토크쇼 진행자, 텔레비전 심리학자, 패션 잡지, 미디어 논평가들의 공세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의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님(1895~1988)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지금보다 더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⁴

이런 상황에서 혼란과 낙담, 그리고 자기 회의는 차츰 우리의 신앙을 부식시켜 나가며, 우리가 구주와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외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정의 초점을 유행과 세상적인 방향에 맞춘다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1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대중적인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 차이는 큼니다. 유행, 패션, 대중적인 이데올로기는 빠르게 지나가며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안전과 인도와 진리의 닻의 역할을 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선지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교리와 원리들에 우리의 이상과 방향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위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지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⁵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게 될 봉사에 준비되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서 준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회들을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것들을 우선시 할 때, 분명한 배움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느끼는 축복을 받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⁶

개인적인 합당성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성신의 인도를 받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부도덕, 외설물, 중독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도 피해야 합니다. 죄는 주님의 영을 몰아내며,

그런 일이 생길 때 영의 특별한 깨우침은 사라지고 배움의 등불은 흔들립니다.

현대 계시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합당성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때 우리의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88:67)

우리는 이 영원한 원리를 최근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개했을 때, 시비조로 임했을 때, 논쟁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떠한 가르침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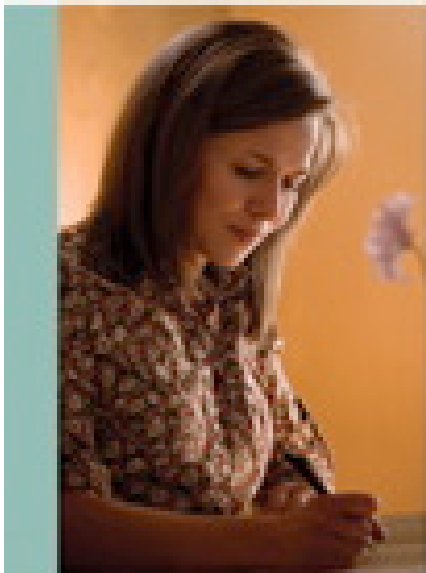
죄와 화는 정신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지를 특징 짓는 빛과 진리와는 상반되는 상태를 자아냅니다. (교리와 성약 93:36 참조) 그러므로 성신의 가르치는 권능을 통해 빛과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회개는 배움의 길의 필수적인 단계가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각자는 영을 동반하기에 더 합당하게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의 개인적인 식견을 확대시키며, 우리가 진리를 더 잘 옹호하고 사회의 압박을 견뎌내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교육

우리의 교육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개인적인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능력을 분석하여 따라야 할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선택의지와 영감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앞으로 학교 교육과 고용에 대한 결정에 직면한 젊은이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들에 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후기 성도들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 우리의 대조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옥스 장로: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정규 교육에 대한 추구는 치열하고, 계속적이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대학 후에는 대학원이 뒤따랐습니다. 학비는 시간제 일과 용자로 지불했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 얻게 된 늘어난 수입으로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그 외중에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지지와 불어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학교에서의 저의 성취도를 높여 주었고, 졸업을 하고 제 인생의 과업을 진척시켜야겠다는 강한 동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정규 교육이 끝남에 따라 새로 생긴 여가 시간의 일부를 제 직업에 관한 평생 교육과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교회 역사 및 일반 교육 분야의 도서를 읽는 데 사용했습니다.

옥스 자매: 여성의 교육적 행보와 경험은 종종 남성의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여성에게는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한 선택 사항이 오직 두

가지-선생님과 간호사-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저의 "문제"는 제가 둘 중 어느 것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제 자신을 부양한다는 것이 가능하거나 혹은 그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일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여름 방학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앞에 불쑥 나타나 놀라킬 것만 같은 보이지 않는 도전들로 인해 두려워서 거의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직업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 다. 교양 과목에 대한 공부 는 제 영혼을 채워 주었지만, 이제 저는 제 지갑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저는 배움의 매 순간 순간을 즐겼으며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능력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줍고 다소 취약하다고 느꼈던 분야에서, 이제는 할 수 있고 제 스스로 삶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타고난 적성과 재능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옥스 자매가 영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자신을 보스턴에 있는 출판사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영 과 함께 배우는 방법은

교실이나 학교 시험 준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장소-집, 직장, 그리고 교회에 적용됩니다.





교 육은 정규 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배움은 일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즐기는 우리의 안목과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못했습니다. 옥스 장로가 회계학을 공부했을 때, 그것이 그를 법교육으로, 브리검 영 대학교로, 그리고 유타 대법원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며, (로마서 8:28)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받는 교육은 점진적인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것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식은

그 저장 기한이 영원하고 우리가 이 생에서 얻는 어떠한 유용한 지식이나 지혜 혹은 “예지의 원리”는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30:18)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불신하거나 성공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2005년 3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신 칠십인 정원회의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님은 수학, 과학, 공학을 공부하는 여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수님 중 한 분이 저에게 ... 여러분 중 몇몇이 남자 학우들에 비해 능력과 전망에 대해 그리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합당치 못한 생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재능, 기술, 적성, 및 강점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혼동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⁷

특히 여성이 전문직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스스로를 부양하는 문제에

직면한 한 젊은 자매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법을 공부하는 것에 관해 한 교회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 지도자가 그녀를 말렸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능력이나 한계를 모르며, 그녀가 받은 지도자의 권고는 그러한 것들이나 그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영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서는 그녀의 결심이 느껴졌고, 그녀가 자신의 잠재력의 최고 단계에 도달하도록 누군가가 긍정적인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07년 9월 29일에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자신의 메시지의 일부로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적합한 일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 대한 성과가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⁸

학교를 마치고 난 뒤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려는 필요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낮은 우선 순위에 두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단지 세상적인 가치인 직업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원한 가치인 결혼을



미루는 것은 영원히 근시안적인 행동입니다.

한 친구가 딸과 함께 미국 동부의 대학원들을 보러 갔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재능이 많은 딸은 자신이 선택한 최고의 학교에 가면, 교육을 위해 엄청난 부채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종 최고의 교육은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 딸은 기도했으며 많은 부채가 그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부채를 갚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 머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워지십시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조언을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배움을 향한 굶주림

칠십인 회장단의 제이 이 젠슨 장로님은 우리가 항상 “배움과 성장의 날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⁹ 그 날은 배우려는 열망으로 세워져야 하고, 영원한 우선순위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업적인 자격 요건을 늘리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 정서적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법,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욱 숙련되는 법, 그리고 더 나은 부모와 시민이 되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즐거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커다란 행복감, 만족감, 그리고 재정적인 보상은 이것을 통해 옵니다. 교육은 정규 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배움은 일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즐기는 우리의 안목과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종류의 배움은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의 선택적인 사용과 도서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술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과 장소에 대한 경험, 즉 친구들과의 대화, 박물관과 공연장 방문, 그리고 봉사의 기회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넓히고 여정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투는 우리의 배움만큼 커다란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발전시킨 강점들은 앞으로 올 영원 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 또는 지적인 자원을 통해 그것을 쉽게 달성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됩니다. 성장의 요인은 결코 단일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을 쉽게 가지는 사람은 다른 희생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게 되거나 인생의 목적인 진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경전과 교회 문헌들을 연구하고 교회와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교육을 계속해 나갈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며, 영생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더 나은 부모와 왕국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키우고 영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대학 성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하는 성장, 지식, 그리고 지혜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며, 신권의 권능에 의해 인봉된 우리의 가족 관계는 영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 종교의 모퉁잇돌이 됩니다. ■

주

1.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Charge to President Howard S. McDonak”, *Improvement Era*, 1946년 1월호, 15쪽.
2. Brigham Young, “Remarks by President Brigham Young”, *Deseret News*, 186년 3월 14일자, 11쪽.
3. Richard Foreman, Nicholas Carr, “Is Google Making Us Stupid?” *Atlantic Monthly*, 2008년, 7월/8월호, 63쪽에 인용되어 있음.
4. 스펜서 더블류 김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블(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재, 2006년)*, 222쪽.
5. 이 문단 및 기사의 뒷부분에 나오는 몇몇 문단의 요지는 Kristen M. Oaks, *A Single Voice*(2008년)에서 따옴.
6. 헨리 비 아이어링, “Education for Real Life”, *Ensign* 2007년 10월호, 18~19쪽.
7.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What Will Be Relevant”, 출판되지 않은 말씀.
8.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및 *Ensign* 2007년 11월호, 120쪽.
9. 제이 이 젠슨이 앨런 에이치 옥스에게 보낸 서신, 2008년 4월 23일자.



주어진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감

폴 반덴버그
교회 잡지

스테인 아더 앤터슨이 열 다섯 살 무렵이었을 때, 그는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다른 지역으로 여러 번 이사했다. 그들은 당시 스타방에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 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남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스테인은 스타방에르에 있는 교회에 몇 번 가 보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몇 명 만나 보기도 했다. 한 청년이 스테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의 이름은 토 라세 비에르가였다.

스테인이 이따금씩 교회에 가던 중에 하루는 토 라세를 만났다. “그는 저보다 두 살이 많았는데, 제게 정말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라고 스테인은 말한다. “그의 주변에 있을 때면 저는 선한 영을 느꼈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 라세에 대한 그와 같은 인상이 없었더라면, 스테인은 토 라세가 특별한 권유를 하기 위해 스테인의 집에 왔을 때 그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1970년대 중반에 그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노르웨이에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토 라세가 최초의 세미나리 교사로 부름 받았을 때였다. 토 라세는 그 당시 겨우 열 여덟 살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책임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 다소 긴장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는

떠올린다.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는 자신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활동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토 라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즉시 저는 스테인 아더를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명단에 있는 이름 중 하나였을 겁니다.”라고 스테인은 말한다. 하지만 토 라세에게 스테인은 명단에 있는 하나의 이름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토 라세는 스테인의 이해력과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성격으로부터 받았던 인상을 기억한다. 그래서 토 라세는 스테인에게 새로운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토 라세는 방문하기 전에 스테인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전화를 걸어서 그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 라세가 스테인의 집에 가려면, 배를 타기 위해 35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했다. 그런 다음, 그는 45분 동안 배를 탔다. 마지막으로, 그는 30분을 더 걸어야 했다. “저는 항상 이 점에 대해 생각해요.”라고 스테인은 말한다. “토 라세가 한 일은 정말 주어진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의 35년 전에 토 라세가 스테인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영을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 동안, 스테인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축구와 스카우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트럼펫을 연주했으며, 온갖 종류의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죠.”

“토 라세는 세미나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인 아더,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우리와 함께 경전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래? 저는 난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때로는 작은
노력으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매일 아침 집에서 경전과 세미나리 공과를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리고는 네 다섯 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이 매주 함께 만났다. “점차로 저는 이른 아침에 혼자 경전을 읽으면서 영을 느끼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스테인은 말한다. “얼마 후 저는 아침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루 하루를 보낼 수 없다고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간증을 얻기 시작했지요.”

스테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얼마 후 저는 그러한 느낌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영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일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삶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무언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스테인은 자신이 그토록 바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리에 등록하겠다고 말했을까? 그는 “성신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되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토 라세가

신앙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는 주어진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 저는 그의 권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약 1년 정도 지난 후, 토 라세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심했고 노르웨이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스테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갔다. “토가 귀환했을 때, 저 역시 선교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스테인은 말한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었고,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제 여생 동안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인은 그의 신권 지도자들과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 집으로 걸어갈 때, 그의 발이 마치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스테인이(역시 노르웨이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그는 오슬로에서 열린 청소년 대회에서 그의 미래의 아내인 힐데를 만났다. 선교 사업 기간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고, 귀환한 후 둘은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네 명의 자녀가 있다. 두 아들은 성전에서 결혼했고, 두 어린 딸들은 아직 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세미나리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토 라세가 저희 집에 온 그날 밤 제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스테인은 말한다. 그

방문은 그가 아내를 만나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가족을 시작하고, 복음의 토양 위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모든 것에 이르는 길로 그를 인도했다. “저는 지부 회장과 지방부 회장, 그리고 감독으로 봉사했는데 이는 모두 토 라세가 저희 집에 방문하여 제가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토 라세가 주어진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이다.

■ 스테인은 이렇게 말했다. “토 라세가 저희 집에 온 그날 밤 제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다 앤더슨(맨 오른쪽), 그리고 동생 앤, 부모님인 힐데와 스테인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이 교회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테인 앤더슨의 막내 딸인 아이다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 아이다의 선생님은 몰몬에 대해 몇 차례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복수 결혼을 시행했다고 가르쳤다. 아이다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선생님이 다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했을 때, 아이다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선생님은 유타에 있는 몰몬들이 실제로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복수 결혼을 행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복도에서 저를 멈추게 하시곤 제가 했던 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교회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더 알아보고 싶고, 우리 반의 많은 학생들도 더 알고 싶어할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반 친구들을 위해 교회에 대해 발표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흘 뒤, 저는 반 친구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대부분은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신권 축복까지 받았습니니다.

“저희 선생님이 제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고, 모든 아이들은 필기를 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회복, 구원의 계획, 선교사 및 교회 표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 뒤 반 친구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곤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항상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이 되지 않았고, 질문에 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제가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것에 대해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밤새워 공부하지는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왔을 때, 나는 복음 원리들이 나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삶 역시 축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시아 베로니카 살라사르 마르케즈

나는 청년 때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부름을 받아서 수행했었다. 그것은 내가 초등 교육 분야의 학위를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이 나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단지 전공의 선택만이 아니었다. 졸업을 준비하면서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는 세 명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내 졸업 논문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 심사위원들 중에는 내가 들은 수업을 가르친 교사들도 있었다.

논문을 정성껏 마무리한 후, 나는 구두시험 전날 저녁 몇 시간 동안 남자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 내가 집에 가려고 나섰을 때, 남자 친구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다음 구절을 인용해 주셨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이튿날이 되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나는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내가 자라났던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것을 기억했다. 또 나의 가족들이 그 비용을 대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을 기억했다. 나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나는 이 마지막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야만 했다.

반 친구들 역시 그들이 치를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 앓 습 니 다

우리 모두는 심사위원들이 던질 질문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만, 나는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정리하고 조사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안심이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의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나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내가 다룬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물었다. “이 논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나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했다. “저는 제 논문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보통 학업 때문에 늦게 자지는 않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하루를 잘 계획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같은 심사위원이 말했다. “본인 스스로가 밤 늦게까지 깨어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다소 의아스럽군요. 우리는 학생의 반 친구들이 수많은 밤을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다. “이 학생에 대해 말씀 드리지요. 그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알기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부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 있고 또 교회에도 참석합니다.”

“정말입니까?”라며 다른 심사위원이 다시 한 번 놀랐다. “어느 교회에 다니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다.”라고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 날 활력 있게

하라고 배웁니다.”

비록 이런 전문적인 시험 시간에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에 놀라기는 했지만, 나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학생의 논문에서는 대단한 힘과 확신이 느껴집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교회 때문에 학생이 가지게 된 습관들 때문이기도 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가 학위를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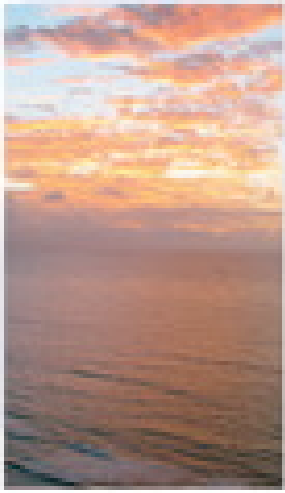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했군요.” 한 위원이 농담을 건넸다. “우리는 학생이 교회에 계속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가진 훌륭한 자질들을 그곳에서 많이 배운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 나는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에서 나왔다. 2분 후, 그들은 나를 다시 안으로 불렀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모범적인 행동과 훌륭한 학업 성적, 그리고 오늘 발표한 논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리는 만장일치로 영예로운 표창과 함께 졸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을 때,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4) 명하셨을 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한다. 나는 삶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린다. ■



희망의 불을 밝히는 힘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후기 성도들에게, 영구 교육 기금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이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딜슨 마시엘 데 카스트로 이세가 상파울루에서 직장을 잃었을 때, 그들 부부는 딜슨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브라질 북동부의 큰 항구 도시인 헤시피로 이사했다.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딜슨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헤시피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일자리는 경력과 관계 없는 임시직 뿐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딜슨은 회상한다. 수해로 인해 부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면서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남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딜슨은 그 어려운 시기에 지역 칠십인이자 교육 기구 대표인 구텐베르그 아모림 장로를 만나 직업과 교육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딜슨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교회에서 그 당시 막 도입된 영구 교육 기금 덕분에, 딜슨은 18개월간의 간호 교육에 이어 2003년에 그 영감을 직업으로 실현시켰다.

“그 기금이 없었다면 제게 필요했던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딜슨은 말한다. 그는 현재 헤시피에 있는 공공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의 부인인 알렉산드라 역시 그녀가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지 못했을 것이다.

“6년 전에 우리는 실직한 상태였습니다.”라고 딜슨은 말한다. “영구 교육 기금은 우리가 이를 수 있었던 모든 것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응답

브라질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형용사를 사용한다: *miraculos*(기적의), *inspirado*(역: 영감 받은), *maravilhoso*(역: 놀라운). 그것은 그 기금이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를 성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젊은 형제자매와, 그들의 미래의 가족들, 또한 그들 지역의 지도력으로부터 축복 받게 될 교회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 명을 빈곤의 수렁에서 지식과 번영의 햇빛 속으로 들어올릴” 것입니다.¹

힝클리 회장이 이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브라질의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대표인 파울로 알 그랄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브라질 후기 성도들—특히 젊은 귀환 선교사들의 교육과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힝클리 회장님에게 우리가 이 훌륭한 기금으로 이루게 될 일들에 대해 계시하시기 전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육과 직업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후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축복이자 유익이며, 또한 그것은 희망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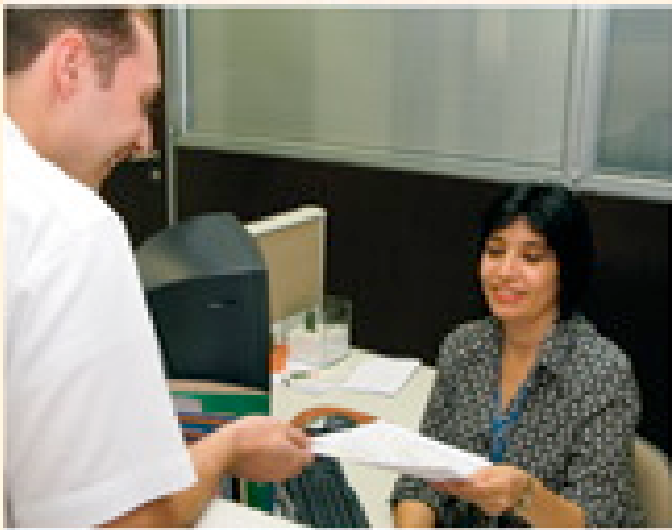
현재 브라질에 있는 10,000여명의 후기 성도들이 영구 교육 기금 대출에 의지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며 이후 그들 직업의 장래성을 높이고 있다. 브라질은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많은데, 특히

영구 교육 기금을 통해 들은
마시엘 데 카스트로 이세는
브라질 헤시피에서 간호사가
되었고 자신이 받은 영감을
직업으로 실현시켰다. 아래:
식민지 시대 도시인 올린다에서
바라본 헤시피.





위로부터: 쿠리치바 역사 센터인 라고 다 오렘의 정면. 영구 교육 기금은 리카르도 오렘리오 다 실바 피우사의 교육 및 직업적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었다; 모리시오 에이 아라우요(왼쪽)가 후기 성도 친구인 레나토 에이 로메로(왼쪽)와 주앙 비 모레이라(가운데)와 함께 사업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지역 서기인 아단 툴만과 함께한 실비아 오 에이치 파라.



선교 임지에서 자질을 키우고 교육까지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문을 열

지역 칠십인이자 헤시피 북 종교 교육원 책임자인 페드로 페나 장로는 귀환 선교사들이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지닌 경험과 공부 습관, 용모, 그리고 정직한 품행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용 기회의 문이 빨리 열립니다. 그들은 빠르게 발전하며, 그들의 품행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끕니다.”

2002년, 리카르도 오렘리오 다 실바 피우사는 브라질 상파울루 북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4년제 대학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 대출을 사용했다.

“그 기금은 제가 성장하고, 직업과 결혼을 준비하며, 교회에서 더 잘 봉사하도록 도왔습니다.”라고 리카르도는 말한다. 많은 영구 교육 기금 수혜자들과 같이, 그는 자신의 학위를 마치기 전에 채용 제의를 받았다. “그 기금은 제 삶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교 사업 기간 동안 리카르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 열심히 공부하는 법, 그리고 순종하는 법 등 자신을 좋은 학생이자 직원으로 만들어 주는 훌륭한 자질들을 배웠다.

“많은 교수님들은 제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리카르도는 말한다. 그는 헤시피 남쪽 수아페 항에 있는 물류 운송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것은 제가 지닌 종교적인 원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답은 리카르도가 그의 교수님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끌었다.

브라질에서 영구 교육 기금의 수혜를 받은 첫 귀환 선교사들 중 한 명인 모리시오 에이 아라우요는 이렇게 덧붙인다. “직장에서의 성장과 함께 모범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정말 달라.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생활하니 말이야.’ 영구 교육 기금의 수혜를 받고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선교부에서 봉사한 모리시오는 영구 교육 기금으로 고객 관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영업사원에서부터 상파울루에 있는 국제 시간관리 훈련 회사 이사회를 관리하는 팀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승진을



영구 교육 기금은 어떻게 삶을 축복하는가

거듭했다.

“영구 교육 기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기금은 제가 교육을 마치고 직장에서 앞서 나아가게 해 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훌륭한 투자

가브리엘 살로마오 네토는 후기 성도가 아니지만, 그 역시 영구 교육 기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브라질에 있는 많은 고용주들을 대신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

상파울루에 있는 대규모 자판기 회사의 책임자이자 공동 소유자인 네토 씨에게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교회 회원인 실비아 오 에이치 파라가 지닌 자질에 크게 감명을 받아 그녀를 비서실장으로 고용했는데 그녀는 영구 교육 기금 대출의 도움을 받아 경영학 학위를 받았다.

“우리는 그녀의 일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유능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네토 씨는 말한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녀에게 한 투자는—여러분과 그녀, 또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과 영구 교육 기금의 혜택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파울루 와드의 회원과 비회원들을 위해 영어 회화반을 가르친다. “제가 받은 것처럼 저 역시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실비아의 성공이 보여주듯이, 젊은 형제들만이 브라질에서 영구 교육 기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있는 많은 후기 성도 여성들도 직업을 추구한다.

“브라질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새 차나 비싼 옷을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일을 합니다.”라고 남 브라질 쿠리치바 소재 교회 취업 자원 센터의 책임자인 로리발 비아나 데 아귀라는 말한다. “그들은 가족이 더 잘 먹고, 아이들이 필요한 옷을 입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구 교육 기금은 24개국 이상에 위치한 교회 취업 자원 센터 및 종교 교육원과 협력하여, 귀한 선교사들과 기타 후기 성도 젊은이들이 직업 및 기술적 훈련과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영구 교육 기금 지원자들은 우선 교회 교육 기구와 취업 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워크샵에 등록해야 한다. 워크샵을 통해 회원과 비회원들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교육과 취업의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훈련 또는 교육을 완수한 후, 영구 교육 기금 수혜자들은 매달 가능한 금액만큼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

영구 교육 기금을 위한 기부는 와드와 지부에서 십일조 및 기타 헌금 양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더 큰 행복, 더 강한 간증

케이트 데 리마 에이 아미드와 비비아나 토레스 노구에라는 그들의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들에게 영구 교육 기금은 커다란 축복이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18개월 과정의 안전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때, 케이트의 가족 중 저할동인 회원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는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007년에 자신의 분야에서 전임직을 제안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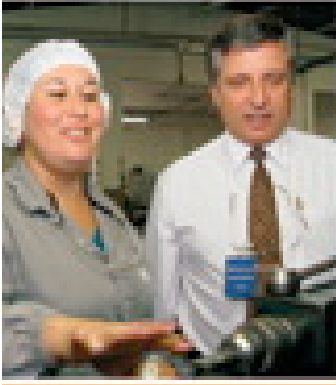
“그 기금은 제가 훈련을 받고 직업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감을 갖고 제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키우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케이트는 말한다. 그녀는 쿠리치바 근처의 상호세도스 핀하이스에 있는 회사에서 안전 검사와 훈련 및 시행을 담당하기 위해 고용된 최초의 여성들

중 한 명이다. “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과 더 강한 간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케이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그녀의 성취와 추진력, 그리고 영구 교육 기금이 그녀의 가족의 삶을 축복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다시 교회의 활동 회원이 되었다. “교회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인 것에서 뿐만 아니라—온전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면에서까지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이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비비아나와 그녀의 남편 라파엘은 2002년에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콜롬비아에서 마나우스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브라질 북부에 있는 주요 산업 중심지이다. “기도, 가족 평의회, 신권 지도자들의 인도와 진로 워크숍 수업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비비아나는 말한다. 그녀는 국제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007년에 비비아나는 마나우스에 있는 한 매장에서



위: 케이트 데 리마 에이 아미드가 쿠리치바에 있는 교회 취업 자원 센터의 책임자인 로리발 비아나 데 아귀라와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아래:** 비비아나 토레스 노구에라가 마나우스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삽입:** 남편 라파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한 비비아나.

수입품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가족에게 수입이 더 필요했지만,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으므로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아기-부부의 네 번째 자녀-가 태어나고 몇 달 후, 비비아나는 다른 회사에서 국제 무역 책임자로 일하도록 제의 받았다. 이때까지 그녀는 포르투갈어를 배워두었고, 그녀의 모국어인 스페인어인 덕분에 브라질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그녀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제가 일자리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제게 네 명의 자녀가 있어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밖에 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능력에 대해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시더군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깜짝 놀랐죠.”라고 비비아나는 말한다.

비비아나는 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집에서 일한다. 사무실에 나가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족의 축복은 단순한 우연 이상이라고 라파엘은 말한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린 일련의 결정들과 교회가 제공한 도구로 인해 가능해진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희망의 빛

브라질의 영구 교육 기금 책임자인 질마 디아스 다 실바는 일부 브라질의 후기 성도 회원들의 경우 교육을 마친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부분의 영구 교육 기금 수혜자들은 직장에서 발전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기금이 성공적입니다.”라고 말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한 성공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혔으며, 이제 그들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주

1. 고든 비 헝클리, “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년 7월호, 62쪽; *Ensign*, 200년 5월호, 52쪽;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아호나* 및 *Ensign* 200년 5월호, 61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따라야 할 모범,” *리아호나*, 200년 10월호, 6쪽; *Ensign* 200년 10월호, 8쪽.



알고 계십니까?



헝가리의 교회

1887년, 헝가리인 미샤 마르코프는 터키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근처에서 개종했다. 1899년에 그는 자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지만, 전도했다는 사실로 인해 체포되었고 헝가리에서 추방당했다. 그는 인근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마르코프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정부가 강제로 추방하기 전까지 헝가리 테메스바르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떠나기 전날 12명에게 침례와 확인 의식을 베풀었고 31명의 회중을 위한 지도자를 지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헝가리에서 총 106명이 교회에 가입했다. 그 뒤 1980년대까지 선교 사업은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되었다.

1988년 6월, 헝가리는 교회를 인가했다. 1년 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그 나라의 첫 번째 집회소를 헌납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가 1990년 6월에 설립되었다.

현재의 헝가리 교회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자.

총 회원 수	4,25명
선교부	1개
와드 및 지부	19개
가족 역사 센터	5개

www.lds.org/Newsroom 자료에서 발췌.

본디 구조대에서 바기오 구조대로

호주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본디 구조대에서 “신참” 구조대원으로 잘 알려진 블레이크 맥퀸은 지난 5월, 또 다른 구조 업무를 위해 자신의 근무지를 떠났다. 그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봉사하라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소식과 자신의 느낌을 동료 및 시청자들과 나누었다. “제가 필리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저는 분명히 해변을 그리워하겠지만,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도 제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일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렇게 덧붙인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해변에서 했던 일보다 더 원했던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숫자

58,809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1985년~2007년 사이에 전달한 식량의 톤 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본디 구조대에 나오는 블레이크 맥퀸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동안에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저 말로만 속해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실천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제 삶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지침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들 가운데 몇 가지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야호나 및 Ensign, 2006년 5월호, 44쪽.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교리와 성약 25:12)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음악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 되고 복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로라 에스, 16세, 헝가리 미슈콜츠

노래하기와 이야기 들려주기

스테판 티 케이스

아 내 산드라와 함께 남아프리카 두반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지역 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20년 넘게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원으로 활동했고, 아내는 한 초등학교의 도서관 고문으로서 이야기 시간을 담당할 자격이 있었다. 선교부 회장이 근처 작은 마을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기회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마을을 방문해 살펴보니 그곳 학교에는 도서관이 없고 다만 마을에 조그마한 지역 도서관이 하나 있었다. 젊은 장로들은 우리에게

도서관 책임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우리는 그 책임자에게 매주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조금 생각한 후 그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데에 동의해 주어서,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첫 날에는 다섯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지만 차츰 더 많은 아이들이 왔다.

몇 달 후, 우리는 최근에 개종한 한 젊은 여성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녀는 영어와 줄루어(역자주: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말)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이야기 시간에 참석하는 수가 점점 늘어났으며, 도서관 책임자와 부모들은 그곳에서 진행되는 일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영 *영어 줄루어를 구사하는 최근 개종자의 도움을 받은 후로 이야기 시간의 참석자가 늘어났다.*

줄루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했으므로 우리는 이야기 시간에 간단한 노래와 각운을 넣기로 했다. 선교 사업 기간이 끝날 무렵, 우리는 백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매주 두세 번의 노래와 이야기 시간을 열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그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고 각운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것도 참으로 큰 축복이었다.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동안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 그 지역의 교회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일요일 모임을 가질 장소가 필요하게 되자, 도서관 책임자는 무료로 도서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방법을 찾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선교 지역을 열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드린다. ■





남 편과 나는 아들에게 매일
 몰몬경에서 자신이
 아는 글자를 스스로
 읽어 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보이는 단어들을 골라서 그 글자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매일 부지런히 읽었고, 연말 무렵에는 읽기 수준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있었다.

이제 우리 아들은 6학년이다. 그는 현재 읽기에 매우 뛰어나며, 다섯 동생들에게 그가 몰몬경

읽기를 통해 받은 은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뛰어난 독해력과 몰몬경 읽는 습관을 키웠다.

그들은 간증을 키우면서 강한 진리의 영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

읽고 쓰는 능력의 은사

린넷 맥콩키

크 아들이 유치원을 좋아해서 그곳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학년이 되자, 그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였다. 그는 띄엄띄엄 몇몇 단어를 읽을 수 있었지만 읽기 과제는 시작조차 힘들어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의 읽기 능력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점점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나의 선교부 회장님이 오래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났다. 당시 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은 저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도전이었는데, 우리 선교부 회장님은 매일 러시아어로 몰몬경을 읽으라고 조언하셨다. 그는 몰몬경의 힘이 우리가

러시아어로 소통하는 능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옳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러시아어를 더 잘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간증도 커졌다.

선교 사업을 마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러시아어로 해낼 수 있었는데, 내 아들이 영어를 못할 이유가 뭐야?” 아들이 나에게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와 선교부 회장님의 조언을 들려준 후, 남편과 나는 그 아이에게 매일 몰몬경에서 자신이 아는 글자를 스스로 읽어 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는 각 페이지에서 하나님과 주님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단어들을 색칠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얼마 후, 그는 예수님이란 단어로 옮겨갔다. 그 후 아이는 눈에

선교 사업을 위해 학교를 포기할 것인가?

은혜부씨 오교로

나는 199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름장이 왔을 때,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 한 곳에서 의대에 막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나이지리아에서 의과 대학 입학은 경쟁이 심해서 입학 허가를 반납하는 일이 없다. 몇몇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선교사 부름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나는 내게 봉사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6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고대해 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선교 사업 후에 의과 대학 입학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린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해 준 가정 복음 교사, 가족, 그리고 교회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세미나리 참석과 경전 공부와 복음 생활은 나의 확신을 뒷받침해 주었다.

선교사로서 나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다. 24개월 후 명예롭게 귀환했다. 주님은 귀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지만 그들이 고난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진 않으셨다. 나이지리아의 귀환 선교사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에는 실업과 교육비 부족이 있다.

선교 사업 이후 첫 3년 동안 나는 세 번의 입학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지만, 의과 대학 재입학 허가는 받지 못했다. 그 3년 동안에는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옹호하며 의과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반납한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기도 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나는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라고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인생을 지시하시도록 맡겼다. 그렇게 하자마자 모든 일이 해결되기 시작했지만-내가 계획했던 대로는 아니었다.

어느 금식 주일, 나는 주님의 도움을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자마자 모든

일이 해결되기 시작했지만-내가 계획했던 대로는 아니었다.

위해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6개월 전에 내가 참석했던 보안 훈련 중에 만났던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자기 형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안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해 낸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했다.

다음 날, 나는 그 회사에 채용되었다. 그 특별한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나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 일은 다른 일자리로 이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세상적인 성취만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선교 사업 후 여러 해 동안 세상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주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의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결혼을 하도록 지시하는 부분과 더 높은 교육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되었다.

비록 의과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나는 회계학과 수학에서 동등한 학위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충분히 안정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명예로운 선교 사업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후에 더 높은 교육의 기회를 추구하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젊은 남녀의 인생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오는

경험과 배움과 축복을

가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버나데트 가르시아 스토도밍고

진리를 추구하여 선교사들을 처음 찾았던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부모님과 다섯 남매-는 침례를 받았다. 우리의 간증은 더욱 강하게 자라났다. 우리는 많은 것, 특히 구주와 가족에 대해서 배웠다.

아버지는 1992년에 필리핀에서 감독으로 봉사하시는 동안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다.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셨다.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다. 아버지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다. 어머니는 우셨으며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 이후 나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추억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소리라도 질러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나는 단순히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진지한 기도였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고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앞날이 암울하고 불확실해 보였다. 아버지께 조용히 작별 인사를 드리면서, 나는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의 밤을 떠올렸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교회 영화를 보았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지상의 아버지는 고요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죽음은 스물두 살이었던 내게 있어 인생의 수백 가지 변화의 시작을 예고했다. 아버지의 부재로, 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힘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변화와 성장으로 나는 더 많은 인생 경험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는 그분이 듣고 계셨음을 안다. 그분은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분은 그때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으며, 우리에게 바로 그것-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현실을 직시하는 힘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고난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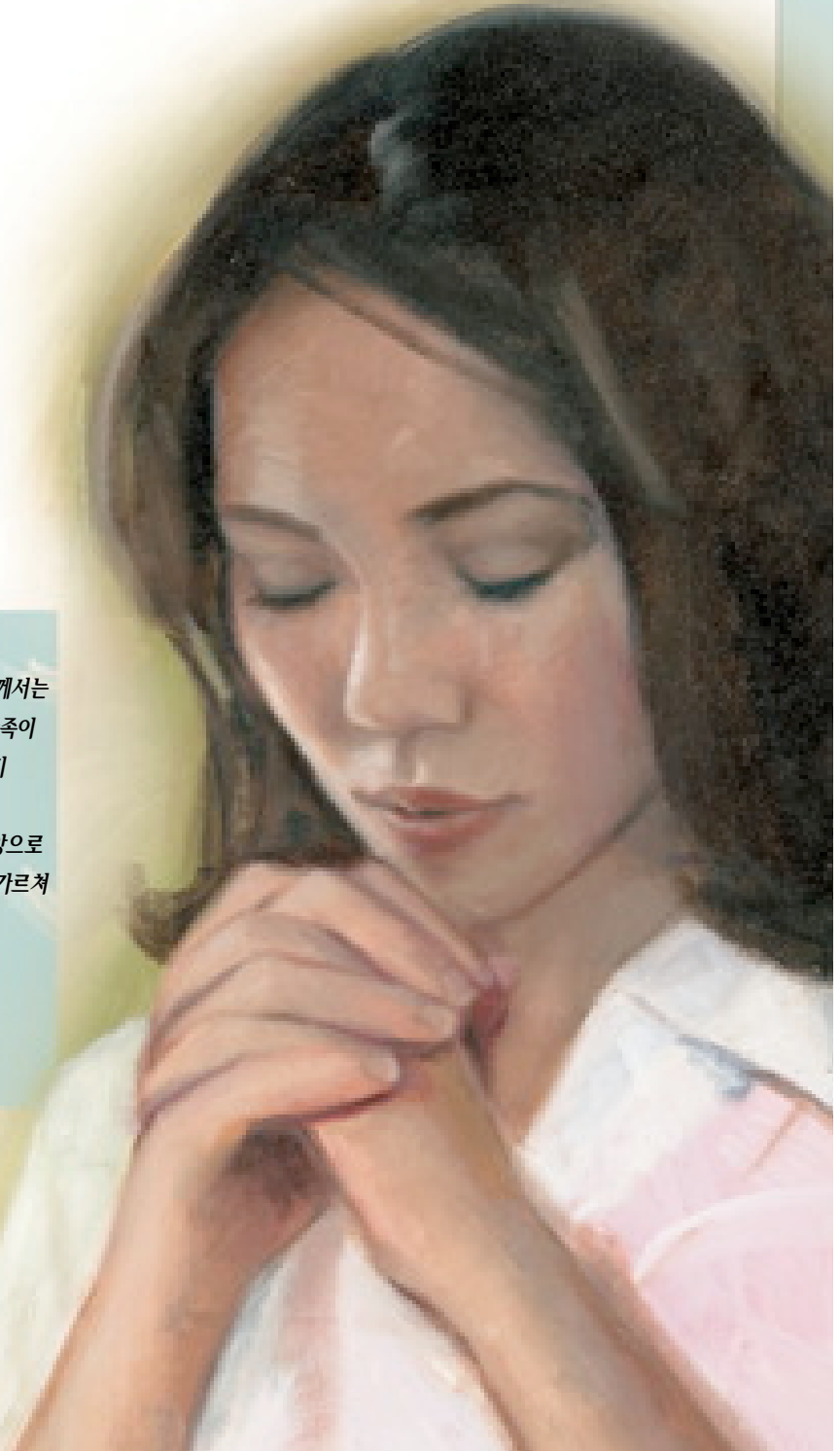
그 고통스러운 날 이후로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복음 속에서 배우고 있으며, 또한 성장하고 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있으며, 성전에서 인봉 받아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나는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것임을 안다. 내가 가야 할 여정은 아직 멀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쁘기 그지 없다. ■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고난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속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14쪽:
가족들에게 니파이에게 관해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니파이가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다. (니파이후서 5:2 참조) “속죄를 통한 행복” 부분을 요약한다. 니파이가 자신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기사의 마지막 두 문단을 읽고 마친다.

“배움과 후기 성도”, 26쪽: 미리 기사를



읽고 가족들에게 제일 의미 있을 법한 내용들을 선택한다. 가족들에게 선택한 내용을 읽어 달라고 하고 그들이 읽은 내용을 토론한다. 기사의 마지막 두 문단을 읽고 마친다.

“선지자의 약속”, 친6쪽: 기사를 읽은 후, 가족에게 경전을 아무 데나 펼치고 책을 거꾸로 든 채로 구절을 하나 읽어 보라고 한다. 정규적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어떻게 가족 각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읽고(기사의 시작 부분 참조), 계속해서 함께 정규적으로 경전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배움을 기뻐함”, 친12쪽: 자녀들에게 번갈아 가며 말없이 행동만으로 어떤 직업을 표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게 한다.

페이지 수는 각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성찬, 14쪽
가르침, 2, 32, 44쪽	세미나리, 32쪽
가족, 2, 22쪽, 친6쪽	속죄, 14쪽, 친2쪽
간증, 22, 32쪽	순종, 14, 36쪽
경전 공부, 25, 45쪽, 친6쪽	영구 교육 기금, 38쪽
교육, 21, 26, 36, 38, 44, 45쪽, 친12쪽	영생, 14쪽
교회 조직, 22쪽, 친8쪽	영원한 가족, 46쪽
교회 활동, 22쪽	예수 그리스도, 8, 14, 20, 21쪽, 친4쪽
기도, 24, 46쪽	조셉 스미스, 친10쪽
방문 교육, 25쪽	진리, 26쪽
부름, 32쪽	초등회, 친4쪽
부활, 8, 14쪽	침례, 친15쪽
불멸, 14쪽	행복, 14쪽
선교 사업, 2, 32, 44, 45쪽	헝가리, 43쪽
성신, 26쪽	회개, 14쪽, 친2쪽
	희망, 38쪽

가족들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토론한다. 이야기를 읽는다. 러셀이 공룡에 대해 배우기 전에 알아야 했던 것들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88편 118절을 읽고 마친다.

선지자 조셉에게서 배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정의 밤 활동 중 하나는 조셉 스미스와 첫번째 시현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해 주면 손자녀들이 목사들과 조셉 스미스의 역을 맡아 연기했다. 나는 숲을 나타내는 몇 장의 종이 나무들을 그려서 그것을 방의 모서리 벽에다 붙이고 목사들을 나타내는 “목사” 표시도 몇 장 만들었으며, “조셉”이 공부하도록 의자와 성경도

준비했다. 목사들은 저마다 조셉에게 “조셉,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란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렴.” 하고 말했다. 그러면 조셉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또는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모든 목사들이 그에게 이야기한 후, 조셉은 의자에 앉아 야고보서 1장 5절을 큰소리로 읽었다. 그런 뒤 “숲”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우리 모두는 “조셉”이 숲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경건했다.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목사와 조셉 역을 맡았다.

그런 후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시현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그리고 경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 베렛, 교회 잡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에 관한 이야기를 liahona@ldschurch.org에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전 4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도록 권유했다.

50년 동안 이어진 “모든 회원은 선교사”

지 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59년 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9) 교회의 제129차 연차 대회를 위해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 모인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모임을 마치면서 맥케이 회장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회원들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을 미치는 임무를 남겼다.

맥케이 회장은 1923년에 제일회장단의 형제들이 어떻게 영국 선교부에 있었던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여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다가오는 1923년에는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라는 책임을 드립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맥케이 회장은 1959년의 청중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모든 회원, 백오십만의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과제를 이어가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을

인용했다. “그러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모든 남녀의 책임이며 이 위대하고 훌륭한 모임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부름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59년 4월, 122쪽 참조)

교회가 백오십만 회원 선교사에서 천삼백만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부름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2008년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말씀을 기억해 왔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회원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도록 권유 받고,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2쪽) ■

성도들, 주님의 재정 계획 안에서 신앙을 행사하도록 권유 받아

엘리 솔트, 복지 서비스

제이슨과 엘레너 해너는 제이슨이 실직하자 많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가?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심사 숙고한 후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헤아리고 시도해 보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씀하신 부채, 예산 계획, 저축과 같은 주제의 말씀들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며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면 축복 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라고 엘레너는 설명한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후, 제이슨과 엘레너는 대학으로 돌아가 학사 학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교육비를 지불할 최소한의 학생 용자를 받고 다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둘 다 전임으로 일했다. 그들은 둘 중 한 명이 집에 남아 자녀들을 보살피도록 업무 시간을 조정했고 신중하게 예산을 짜서 필수적인 지출은 하되 패스트푸드, 케이블 TV, 새 옷에는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제이슨은 주유비와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학교와 직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이제 제이슨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엘레너도 학위를 마치고 현재 다섯 자녀의 엄마인 전업 주부로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십일조를 바치며 교회 지도자들의 재정적인 권고에 따라 살고 있다. 엘레너는 “우리는 시련과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라고 말한다.

주님의 재정 계획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요한복음

15:19)라고 말씀하셨다. 회원들이 재정적인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철학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의지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소책자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에서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그들의 재정을 고려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자립하도록 노력하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역경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부채를 갚고 재정 예비금을 지니고 있다면 ...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한층 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마음에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¹



주님의 재정 계획을 실천하는 데는 인내, 절제, 희생 및 순종이 요구된다.

그 소책자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를 요약하고 있다: 십일조와 헌금을 낸다, 부채를 피한다, 예산 계획을 활용한다, 예비금을 모은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르친다. 이 원리들을 실천하는 데는 인내와 절제와 희생이 요구되지만 주님의 재정 계획에 순종할 때 개인 및 가족에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며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십일조와 헌금을 낸다

리차드 모이어가 실직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가정에 비축해둔 음식을 먹고 저축해둔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쳤다. 실직에도 불구하고, 모이어 형제는 그 해에 그 전해보다 정확히 1불 더 수입이 있었음을 보고 놀랐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을 언제나 십일조 덕분으로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라고 모이어 형제는 설명한다.

건전한 가족 재정에서 오는 축복은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고 관대한 금식 헌금을 내는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헌금이 집회소와 성전을 건축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부양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으로써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가운데 수입의 일정량을 주님께 돌려드릴 기회를 갖는다.

회원들은 이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이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원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이 헌금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소책자,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은 주님의 재정 계획을 가르친다.

축복하는지에 대해 더 배움으로써, 회원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이 축복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수입이 생기는 즉시 십일조와 헌금을 떼어두는 습관을 기쁨으로써, 그것은 회원들의 삶에 재정적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제일회장단의 엔 엘돈 태너 회장(1898~1989) 십일조가 약속이 수반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이 조물주에 대한 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여러분도 이 계명에 충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큰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²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칠 때 교회 회원들은 모이어 형제의 가족이 경험한 바와 같이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채를 피한다

버는 돈보다 적게 쓰는 것은 재정적인 안전에 필수적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 장로(1917~2009)

소비성 부채는 개인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속박의 한 형태라고 가르쳤다. 그는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³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에게 적절한 규모의 집을 사거나 교육비 외에는 부채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크루스터먼 가족은 부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맛보았다. 케빈 크루스터먼이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자신의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의 가족은 얼마간의 소비성 부채를 지고 있었다. 그의 스테이크 회장은 그에게 제일회장단의 권고를 상기시켰고 크루스터먼 감독은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한 채 접견을 마쳤다. 그는 “우리는 항상 …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크루스터먼 가족은 재정과 부채에 관한 경전 및 현대의 권고를 공부했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단계를 취했다. 주님의 종들의 권고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크루스터먼 감독은 “현세에서 구주께서 고치실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분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진대, 재정적인 속박에서도 분명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 회원들은 부채를 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부채 상황 계획표는 부채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계획을 세운 후에는 십일조와 헌금을 낸 직후, 꼭 필요한

지불을 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에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을 힘써 따름으로써 부채에서 벗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예산 계획을 활용한다

회원들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도구는 예산 계획이다. 흔히 사람들은 재정적인 안전이 자신들이 버는 돈의 액수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테너 회장은 그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돈을 어떻게 쓸지를 조절하는 것이 참된 재정적 평화와 행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구속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은 예산을 세우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⁴라고 말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제프리 가족은 예산을 세워 재정을 관리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자녀들 중 세 명이 같은 시기에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이것이 가족에게 안겨줄 재정적인 부담을 깨달은 어머니 올가는 엄격한 예산 계획을 시행했다. 제프리 자매는 가족 수입의 10퍼센트를 십일조로 내는 것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10퍼센트를 더 떼어 그녀의 미래의 선교사들을 위해 저축했다. 제프리 자매는 “저는 재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제프리 가족의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부모는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제프리 가족처럼, 교회 회원들은 예산을 세움으로써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예산 계획 초안지를 활용하여 지난 주나 지난 달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볼 수 있다. 돈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결정함으로써 삭감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다음 주나 다음 달의 수입을 예상해 보고 번 돈을 어디에 쓸지 계획함으로써 예산을 작성할 수 있다. 지출한 부분을 살펴본 후에는 예산 계획에 맞게 생활했는지 평가해보고 다음 주나 다음 달치를 조정할 수 있다.

예비금을 모은다

재정적으로 준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병이나 실직 또는 큰 수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제일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이 비상시에만 사용할 재정 예비금을 서서히 모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약간의 돈을 정기적으로 저축한다면, 특히 번창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비상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주님께 정확한 십일조를 드린 후에는 미리 정한 금액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사람들이 온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식품점, 집주인, 전기 회사, 자동차 업자, 은행 등에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지만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것, 즉 저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⁵

예산을 계획하는 동안, 수입 중에 저축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을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큰 액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정기적으로 그만큼을 저축한다면 저축액은 금방 불어날 것이다. 십일조와 현금을 내고 부채를 상환한 후에는 즉시 저축을 함으로써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불필요한 일에 저축한 돈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 돈을 비상시를 위해 예비해 둔다. 교회 회원들이 스스로를 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재정적인 고난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일단 재정 예비금을 구축하게 되면 선교 사업, 교육, 은퇴 및 그 밖의 긴급 상황과 같은 미래의 필요 사항들을 위해 계속해서 저축할 수 있다.

추가 자료

교회는 회원들이 가족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재무 계산, 가정의 밤 공과 자료 및 온라인 재정 과정 등의 자료를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해 왔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ProvidentLiving.com을 방문한다.

소책자,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은 ProvidentLiving.org/content/display/11666,7587-1-4087-1,00m에서 24개 언어로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건전한 가족 재정 계획의 토대는 주님께 먼저 바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르친다

흔히 부모들은 재정 문제에 자녀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정 관리의 원리를 가르치고 재정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자리에 참여시킬 때, 우리는 자녀들을 그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튼튼한 재정의 토대가 행복한 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쳐야 합니다.”⁶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 소책자에 있는 원리들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르칠 방법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 원리들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예산을 짜고 예산 목표를 세우는 데 가족 구성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그들에게 수입을 위해 일하는 것의 중요성과 지출에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

지출을 점검하기 위해 자신의 예산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십일조를 내고 선교 사업과 교육 또는 그 밖의 지출을 위해 돈을 저축할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가정의 밤은 재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가르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가족 전체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 가족은 재정 계획에 대한 주님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족 재정의 축복

재정 준비의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함으로써 자신들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해왔으며 이 권고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을 약속해 왔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기 성도들은 약간의 돈을 떼어 두고 역경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수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과 복지에 헤아릴 수 없는 보탬이 됩니다.”⁷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가족과 개인들은 이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의 축복에 대해 간증해 왔다. 교회 회원들이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따르고 교회가 제공하는 그 밖의 재정적인 조언을 활용할 때 그들 역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주

1.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소책자, 2007년)
2. “변화 속의 불변성,” *청녀 교재 3*, 166쪽
3. “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1쪽
4. 결혼 및 가족 관계, 31쪽
5. “자립하게 됨,” *리아호나*, 1992년 1월호, 77쪽
6. “Providing for Our Needs”, *Ensign*, 1981년 5월호, 85쪽
7.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

몬슨 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DVD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새로운 DVD, **기꺼이 행하는 주님의 심부름**이 14개 언어로 나와 배부 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10월 연차 대회 모임들 사이에 방송된 60분 분량의 이 영상물에는 몬슨 회장, 가족, 동료 및 친구들과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 DVD는 한국어, 미국 수화, 광둥어, 세부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일본어, 북경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

청녀 가치관에 추가된 덕의 성품

제 일회장은 최근 청녀 주제 및 가치관에 “덕”의 성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11월 28일자 제일회장단 서한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추가된 가치관은 청녀들이 높은 도덕적 표준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및 지도자들이 순결의 교리와 도덕적 청결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각 청녀들이 덕스러워지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기에 합당하게 되며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것을 권유합니다.”

이제 청녀 주제에 열거된 가치관들은 신앙, 신성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고결성, 그리고 덕 등이다.

청녀 지도자들은 청녀들과 함께 주제를 암송할 때 추가된 “덕”의 가치관을 즉시 포함시키도록 권고 받았다.

“덕”은 또한 개인 발전 가치관 경험 및 활동에 추가된다. 지도자들은 바뀐 부분의 시행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받게 될 것이다. ■

때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위험한 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며 스스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벼랑 끝에 살면서도 자신의 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자 계획이며, 우리가 만약 그곳으로 이끄는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끝은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5:134)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그분의 귀한 딸들 중 한 명인 에머 스미스에게 충실하고 “내 앞에서 유덕한 길을 걸으”(교리와 성약 25:2)라는 권고를 주십니다.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권고는 그분의 모든 귀한 딸들에게 주시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며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은 높은 도덕적 표준에 바탕을 둔 생각과 행동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순결과 도덕적인 정결함을 포함합니다. 덕은 생각과 말씨와 복장과 품행에서의 정숙함을 포함합니다. 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길에 맞을 제공해 줍니다. 덕의 길은 이 생과 다음 생에서의 행복으로 인도하며 강한 가족으로 인도합니다. 덕의 길은 영원한 축복을 위한 초석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고

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몇 년 전, 저는 청녀들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와이오밍 주 태톤 산으로 배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힘든 산행이었고 둘째 날에는 산행하기 가장 위험한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계곡을 따라 산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이름은 거의 한결같이 거센 바람이 불어대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산림 경비원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 중앙으로 걷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로 걷되 최대한 몸을 낮추고, 모든 것들을 배낭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신속히 움직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곳은 시간을 지체하거나 사진 찍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각 청녀들이 이곳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일레인 에스 돌튼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벼랑 끝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쉬지 말고 덕으로 생각을 장식하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고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교회의 표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각자는 덕의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신의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되기에 합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매일의 결정들이 비록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청년들은 유덕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서 나타나며 여러분의 용모에서 발산되는 빛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유덕하지 못한 광경과 소리들, 음악과 메시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덕을 유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실수를 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한 번 깨끗해지고 합당해지도록 여러분을 도와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은 가까이 도움을 주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회개 과정을 돕기 위해 자신의 권능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의로움의 모범”,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65쪽)

유사 이래, 지금보다 덕이 더 필요로 한 때는 없었습니다. 덕에서 오는 축복과

약속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행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청년 가치관과 주제에 “덕”을

덧붙였습니다. 매주 이 주제를 암송할 때마다 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들은 온라인 상에서 16개 언어로 집회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후기 성도 지도, 16개 언어로 이용 가능해져

LDS.org, Mormon.org 및 maps.lds.org를 통해 제공되는 집회소 위치 검색 서비스인 후기 성도 지도를 현재 16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인터넷으로 가장 가까운 후기 성도 예배 장소를 한국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찾을 수 있다.

방문자들은 현재의 검색 옵션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예배 장소와 시간을 찾을 수 있다. 전화 번호, 단위

조직 정보 및 운전자용 길 안내 등의 추가적인 연락처 정보도 구체적인 단위 조직 웹 사이트로의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방문자들은 또한 언어에 따라, 구체적인 와드 및 지부, 학생 와드 및 청년 독신 성인 단위 조직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집회소 위치 검색은 2001년 5월에 미국과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처음으로 열렸다. 전 세계적인 사용이 가능해진 것은 2008년 8월이었고, 16개 언어 번역은 2008년 12월에 발표되었다. ■

2009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2009년
4월호 리아호나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를 참조한다.

1.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간증을 갖고 있다. 며칠 전에 미리 두 세 명의 나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초등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할 준비를 하도록 부탁한다.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전세에서 나는 _____ 선택했다.” 어린이들에게 지난 주 토론에서 다루었던 전세에서의 선택(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을 상기시킨다. 다같이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전세에서 그들이 그분에 대한 간증을 가졌음을 보여주며, 그 간증은 이 생에서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 배워 나갈 때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칠판을 사용해서 초등회7 교재의 제30과에 있는 보충 활동2를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사용해서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이 사다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개념을 보충한다. 각 어린이들에게 종이와 함께 연필이나 또는 크레용을 한 개씩 준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경전, 훌륭한 음악 및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기르고 강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미리 부탁한 어린이들에게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예: 특이한 동물 또는 꽃)을 그려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 대상의 사진을 보여주고 다시 그리게 한다. 보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그런 다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사무실 벽에는 그가 좋아하는 구주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설명한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저는 종종 저 그림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다음 저는 그 응답에 따라 행하려 했습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리아호나, 2008년 6월호 부록, 2쪽)

각 반원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 개 이상의 참조성구를 준다. 반원들이 그것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모범이 되는 일을 하셨는지 찾아보게 하고 그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게 한다. (예: 요한복음 19:26~27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요한복음 13:14~15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셨다]; 사도행전 10:38 [한 일을 행하러

가셨다]; 마태복음 4:23 [턱음을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1:9 [침례를 받으셨다]; 누가복음 2:52 [혜가 자라셨다]; 마가복음 10:14~16 [한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제3니파이 17:15~17 [도하하셨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림들과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어린이들의 그림들을 연결한다. 예: 복음 그림 패킷 206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초등회2 그림 패킷의 2-23(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어린이); 복음 그림 패킷 242 예수님과 어머니와 초등회1 그림 패킷의 1-46(엄마에게 꽃을 주는 어린이); 복음 그림 패킷 212(산상수훈)과 607(교회에서 말씀하는 어린 소녀); 복음 그림 패킷 208(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과 초등회2 그림 패킷의 2-20(침례받는 소년); 복음 그림 패킷 205(성전에서의 소년 예수)와 617(경전을 탐구함); 복음 그림 패킷 216(그리스도와 어린이들)과 초등회2 그림 패킷의 2-49(짜자를 나누어 먹는 소년들); 복음 그림 패킷 225(최후의 만찬)와 604(성찬 전달); 초등회1 그림 패킷의 1-64(파이인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1-9(하침 기도)). ■

